

시장화시기 북한 주민의 일유형 결정요인*

김 화 순**

- I. 연구의 배경
- II.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 III. 분석자료
- IV. 일유형별 특성
- V. 북한주민의 일유형 결정요인 분석
- VI. 결론 및 북한체제 변화에 주는 함의

국문요약

이 연구는 북한주민의 일(work)이 시장(marketplace)을 중심으로 어떻게 재편되며 이러한 재편이 북한체제 변화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알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유형(work type)'을 기초개념으로 하여 2010년 이후 북한을 떠난 북한주민 200명을 공식일 종사자, 공식과 비공식일을 병행하는 이중일 종사자, 비공식일 종사자, 무직 및 비경제활동 종사자의 네 집단으로 분류하고, 일유형별 특성과 일유형 분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았다.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 요인, 지역 요인, 정치체제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6개의 로짓다항 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만들어 비교한 결과, 정치체제 요인(정치신분, 당원, 토대)이 북한주민의 일유형 분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정치신분이 상층, 중층일 경우 공식일(formal work)에 종사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토대가 적대계층이거나

비당원인 경우에는 비공식일(informal work)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당원이고 적대계층이 아닐수록 이중일(both formal and informal work)에 종사할 확률이 높았다. 일유형에 따른 체제불만 의식의 차이도 뚜렷하였는데(비공식>이중일>공식일), 흥미로운 사실은 이중일 종사자 체제불만의 수위가 비공식일 종사자의 수준에 거의 근접하였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시장화 진전과정에서도 '정치체제 요인'으로 대변되는 국가의 힘이 '일유형'으로 대변되는 북한 노동의 내부 집단 분화(interpopulation differentiation)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한 점이다.

주제어: 일유형, 시장화, 정치체제 요인, 북한주민, 다항로짓모형, 공식일, 비공식일, 투잡스, 8.3 노동자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020). 본 고를 꼼꼼하게 읽고 유용한 지적을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박사후연구원

I. 연구의 배경

배급체제가 와해되고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어떤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왔을까? 이 연구는 최근 북한주민의 삶과 노동이 시장(marketplace)을 중심으로 어떻게 재편되었으며 그와 같은 재편이 북한체제 변화에 갖는 함의는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앞으로 북한체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존재해왔다. 이견이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체제 변화의 동인인 시장(market system)을 보는 관점의 차이로부터 비롯되는데,¹ 이처럼 북한 시장과 체제 간의 관계성을 논하는 ‘북한 시장체제(market system)’ 연구는 거시연구에 속한다. 반면, 이 연구는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선행연구들의 문제의식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장마당 즉 ‘북한의 시장(marketplace)’을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일반 주민들의 노동(work)의 분화상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아래로부터의 미시적 접근’을 통해 향후 북한체제의 변화 동인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 점에서 차별화된다.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참가해왔고, 시장적응력이 높은 자와 낮은 자, 더 많은 소득을 얻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어졌다. 그 구체적 양상을 보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대가없이 노동하는 무급 노동자군을 비롯하여 장마당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자영주들, 그 주변에서 일당노동을 판매하는 다양한 주변노동자들, 공식과 비공식부문이 중첩하는 ‘회색시대’에서 일하는 투잡스(two jobs), 8.3 노동자군 그리고 시장관리인, 보위부와 같이 시장에 기생하는 지역 하층관료 등 다양하다. 그간 질적 연구들은 북한의 시장(marketplace)을 중심으로 이들 군상들이 갈등하며 공생하는 복잡한 상황들을 생생하게 기술하는 방식을 통해 비공식부문의 대두와 계층화

¹ 1995년도 북한주민의 대규모 아사로 상징되는 경제위기 이후 북한은 독자적인 체제이행경로를 밟아왔다. 그간 학계에서는 북한의 체제이행경로를 두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관해 의견이 대립되어왔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북한체제변화의 동인인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박형중,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5호 (2012), pp. 207~224; 김병연·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과 정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2). 체제이행 경로에 대한 논의들은 체제변화의 주체에 대한 논의와 연계되었는데, 관련연구자는 아래와 같다. 서재진, “북한의 성분차별 정책이 시장요소 확산에 미친 영향,” 『통일문제연구』, 제17권 2호 (통일연구원, 2005), pp. 89~109; 이승훈·홍두승,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개별가구의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의 계층화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1권 2호 (2008), pp. 7~41; 박영자, “체제변동기 북한의 계층, 세대, 지역균열,”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5호 (2012), pp. 169~205.

현상과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의 증위를 드러내 왔다.² 이들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변수들을 계량분석과 접목한다면, ‘미시적 역동성이 체제변화에 어떻게 작용했는지’³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그간 시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북한주민의 일 분화 상태와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명료하게 규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며 아래와 같은 질문으로 구체화된다.

“북한주민들은 시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분화되었는가? 일 분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일의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주민들에게 생겨난 노동형태 및 의식상의 변화는 무엇인가? 각 일유형 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며, 체제에 대한 의식이나 불만 수준은 어떠한가? 이러한 현상이 북한의 체제전환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특히 몸은 공식직장에 두고 생계는 비공식 일을 통해 해결하는 이중일 집단은 체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⁴

제Ⅱ장에서 기존의 직업개념을 기초로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공존의 이중적 상황을 반영한 ‘일유형(work type)’개념을 설명하고 연구의 가설들을 제시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의 특성과 한계를 설명하였으며, 제Ⅳ장은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할 데이터와 변수 설명, 세부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한 후 일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은 제Ⅴ장으로, 북한 주민의 일유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일 형태의 분화가 향후 북한체제 변화에 주는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논문을 끝맺고자 한다.

² 이승훈·홍두승,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개별가구의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의 계층화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pp. 7~41; 조정아, “북한의 작업장 문화와 노동자 정체성: 노동통제와 작업동의를 중심으로,” 양문수 외, 『북한의 노동』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박영자,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노동일상의 상황과 구조,”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3호 (2009), pp. 149~171; 박영자, “체제변동기 북한의 계층, 세대, 지역균열,”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5호(2012), pp. 169~205; 윤철기, “북한체제의 주변부로의 귀환: 김정일 시대 정치적 렌트 수취국가로의 이행과 과도기 사회적 특징,”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1호 (2013), pp. 47~73.

³ 박순성·홍민, “북한 일상생활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북한의 일상생활세계』(서울: 한울, 2009), p. 199.

⁴ 이중일집단은 공식일 종사자집단과 비공식일 종사자집단의 중간지대 혹은 회색지대에 놓인 중간자적 존재로서 국가와 시장 양자 간 힘의 균형의 상징이자 눈금의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II.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1. 선행연구

그간 북한의 노동에 대한 연구는 노동체제에 대한 제도론적 접근과 노동일상에 대한 접근으로 나누어져 왔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노동체제에 대한 연구가 주된 흐름을 형성하여 왔으나,⁵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북한의 공장가동이 중단된 이후 새로운 형태의 북한 노동의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고,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노동체제나 제도를 연구 주제로 해왔던 연구방법에서 벗어나 북한주민의 변화된 경제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틀이 요구되었다.

‘노동일상 연구’는 노동체제중심의 연구로는 북한노동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2000년대 중반 경부터 새로이 등장한 연구의 흐름이다. 북한노동을 연구해온 연구자들 중 일부가 제도 중심의 연구가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노동자의 일상생활접근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제기한 것이다. 이는 일상사연구방법론⁶과 궤를 같이 하는 연구방법이기도 하다.⁷ 기존의 노동체제 연구가 노동을 규정하는 공식적 구조와 제도, 그것들의 변화를 주된 연구영역으로 하였다면, 노동일상 연구는 ‘구조와 행위, 또는 구조와 주체의 해묵은 대립구조를 떠나서 노동 자체가 구성되고 실행되는 노동일상을 연구하는 것’이며 ‘역으로 노동일상이 구조와 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를 보여주는 아래로부터의 연구’⁸를 표방한다.

⁵ 정경화, “북한의 노동체제에 대한 제도론적 접근,” 『동향과 전망』, 제62호 (2004).
“첫 번째는 선한승(1994), 오길남(1996), 선한승, 남궁영(1996), 조동호(2000), 조명철 외(2000)으로 대표되는 북한 인력의 활용방안이나 노동법 등에 대한 연구로 이들 연구들은 공식적인 제도와 법률 그리고 사실에 기초하여 북한 노동의 존재형태를 설명하였다. 두 번째는 정치학과 산업사회학 분야에서 진행된 연구이다. 이 연구들은 주로 ‘생산의 정치’에 대한 뷰로웨이의 문제의식을 직간접적으로 수용하여 주로 북한사회 국가의 노동정책이나 기업체제 하 기업소나 공장에서의 노동과정과 노동규율 분석을 통한 국가사회주의 체제 혹은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 체제의 형성과 특성, 그리고 위기 등을 분석한다. 김연철(2001), 차문석(1999), 박정진(1996), 박영자(1999), 홍민(2001), 조정아(2003, 2004), 이은진(2003)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세 번째로 북한의 공장체제와 노동문제를 제도주의 경제학의 개념과 이론틀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자들이다. 북한경제의 개혁방향에 대해 노동인센티브의 문제를 중심으로 제시한 연구(전병유 외, 2004)이다. 그 외에 북한의 기업소, 공장의 행동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노동체제 분석에 기여한 연구로는 양문수(2000)와 이석기(200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⁶ 박순성·홍민 편, 『북한의 일상생활세계』(서울: 한울, 2009), 동국대학교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기획.

⁷ 원래 ‘일상’이란 개념은 일상사연구의 일환으로서 1980년대부터 등장한 개념으로서 역사연구의 새로운 경향이다. 사회사와 반대개념으로서 ‘구조의 역사’로부터 ‘인간의 역사’로의 방향전환을 의미하며,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에 주목한다. 위의 책, pp. 16~17.

이와 같은 노동일상에 초점을 둔 방법론적 접근은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역동적 상황 즉 공장노동이 이완 내지 해체되고, 북한노동자 혹은 북한주민 개개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노력이 각개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기에 비교적 적합하고 현실적인 시도라고 생각된다. 1990년대 이후 북한 사회에서 나타난 다양한 변화들을 포착하기 위해 노동일상 연구는 기존의 문헌연구 이상의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연구방법들을 필요로 한다. 박순성·고유환·홍민의 2008년 연구는⁹ 북한의 일상생활방법론에서 ‘국가의존도 약화와 시장의존도의 증대, 관료문화와 실컨코드의 변화, 경제관념 및 심성의 변화, 노동 및 직장에 대한 태도, 정치생활과 집단적 도덕규율의 형식화’ 등과 같은 주제를 드러내고 생활 연구 자료의 생성과 해석을 위해서는 문화인류학적 접근, 구술생애사, 텍스트의 질적 분석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일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면접자료는 그 유용성으로 인해 연구방법으로 주목받기에 이른다.¹⁰

이 같은 노동일상의 흐름을 대표하는 연구로서 홍민(2006),¹¹ 박영자(2004, 2008, 2009),¹² 조정아(2007)¹³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홍민(2006)은 북한의 공장과 노동세계의 해체과정을 노동자의 ‘노동일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박영자(2009)는 주변노동시장 연구를 통해 체제이행과정에서 공장체제가 해체되고 공장노동자들이 주변노동시장의 노동력으로서 새롭게 구성되는 시장의 상황을 보여주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가 새롭게 제안하는 바는 기존의 직업연구 방법을 북한에 적용한다면, 아래로부터 북한주민 개개인이 현재 북한사회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사적/공적 공

⁸ 차문석, “북한 노동 일상의 세계와 접근방법,” 『현대북한연구』, 제1권 3호 (2008); 차문석, “북한의 붉은 공장과 노동일상세계: ‘아우라’없는 노동일상에 관한 접근.” 『북한의 일상생활 연구: 외침과 속삭임』(서울: 한울, 2009), pp. 363~396.

⁹ 박순성·고유환·홍민,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현대북한연구』, 제11권 3호 (2008), pp. 9~57.

¹⁰ 최봉대, “탈북자 면접조사방법,”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¹¹ 홍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¹² 박영자, “북한 일상생활의 식민화와 탈식민화: 여성생활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42호(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4); 박영자, “2000년대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일상 구술: ‘정상 노동생활의 주변화’를 중심으로,” 『진보평론』, 제38호(2008); 박영자,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노동일상의 상황과 구조.”

¹³ 조정아, “북한의 작업장 문화와 노동자 정체성: 노동통제와 작업동의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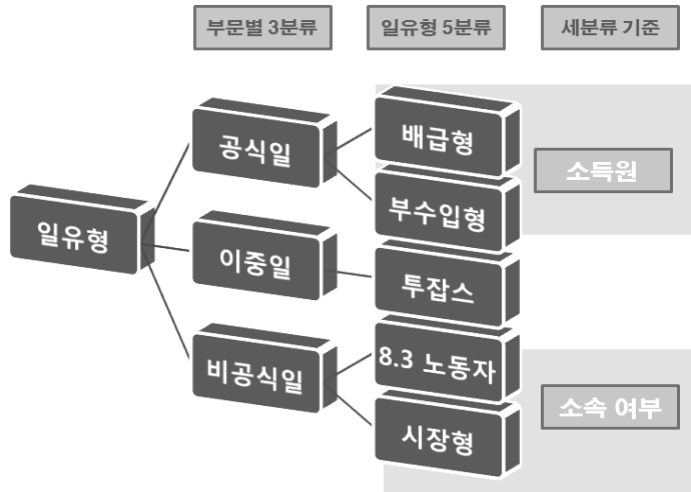
간에서 벌이는 복잡하고도 다양한 활동을 ‘직업(occupation)’이라는 범주 내로 수렴해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개개인의 이동추이뿐 아니라, 공식/비공식 영역에서 벌어지는 집합적 동학(dynamics)의 패턴을 잡아내거나 구조를 보여주는 데 보다 효과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북한연구에 직업연구를 적용한다고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직업연구에서는 직업(occupation), 직종(occupations), 직무(job), career(경력)의 네 가지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범주만 가지고는 북한의 복잡한 직업실태¹⁴를 파악할 수 없다. 공식과 비공식 부문에 양쪽을 오가면서 일하는 북한주민들의 특수한 노동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민들의 주 활동영역(공식/비공식/공식+비공식)에 따라 일유형을 크게 세 개로 분류하고 북한주민의 직업연구를 출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직업’, ‘직종’과 같은 개념을 사용한 직업분류는 공식부문의 일을 가리킨다. 반면,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는 법인의 형태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으로서 개인이나 가구에 의해 소유된 기업들을 가리킨다. 식량난 이후 북한에서는 비공식부문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는데, 시장화 시기와 국가 정책에 따라 북한의 ‘시장활동 영역’은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였으며(임강택 외, 2009), 이에 따라 북한주민의 일자리 상황과 구조 또한 변동해 왔다. 북한사회에서 공식부문의 고용인은 곧 국가로서 북한당국은 공식일자리를 제공한다. 시장화 이후 북한주민들은 비공식부문에서 시장에 참여하여 일해 왔는데, 일부는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양자를 오가며 이중적으로 일하는 형태를 취한다.

¹⁴ 직업의 동의어로 job, occupation, career, vocation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job이라는 용어와 occupation이라는 용어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job은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수단을 획득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job은 분업의 구조화가 극단적인 수준으로 발전한 노동사회에서 무조건적이며 신속히 배워야 하는 과제로서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옮겨서 수행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직업이라는 성격을 지니며, 안정적 정체성이 생성되지 않는다.” 황기돈, 『직업연구 방법론의 개선 과제』(서울: 한국고용정보원, 2010). 그런 점에서 job은 흔히 직업이라고 번역되지만, 실상 그 의미는 직무에 가깝다. 한편, 직업(occupation)이란 한 명 이상의 작업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공통된 직무들의 묶음으로 여기서 작업장의 범위란 1인이 경영하는 자영업으로부터 대규모사업체까지를 포괄하는 집합적 개념이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직종(occupations)이 있는데, 직종(occupations)은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무(job)의 집합으로서 직무의 상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job이 협의의 직업 혹은 직무이고 직무의 집합이 직종(occupations)이며, 직업(occupation)은 광의의 의미의 직업이다. career(경력)는 직업(occupation)보다 큰 의미로 종적(longitudinal)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직업은 단순히 생계수단을 넘어서서 물질적 보상, 사회적 지위, 생활기회의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단일지표로 간주(Blau and Duncan, 1967)되어 왔다. 직업이동(occupational mobility)의 양상이나 직업경로(career path)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사회구성원들의 집합적 동학과 변화추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일유형(work type)”은 북한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공식부문, 비공식부문,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을 병행하는 현재의 북한주민들의 일 상태를 분류하는 개념으로,¹⁵ 북한 주민의 일은 공식일 유형(formal work type)과 비공식일 유형(informal work type), 이중일 유형(both formal and informal work type)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활동부문별 3분류). 공식일 종사자들은 시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비공식일 종사자들은 시장에 전적으로 참여하며, 이중일 종사자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동시에 시장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북한주민의 일유형(work type)



공식일 유형 내부에는 소득원이 이질적인 두 종류의 집단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배급에 의존하는 군인이나 관리소 직원 등의 종사자들이 있다. 두 번째는 관료나 주민의 시장 활동을 단속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보위부원이나 보안원, 시장관리인 등 시장에서 일하는 북한주민들로부터 각종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부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득이 배급에 의존하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높다. 이 연구에서는 전자는 ‘배급형’, 후자는 ‘부수입형’이라고 명명한다.

이중일 종사자(both formal and informal work)들은 배급, 부수입, 장사 등 소

¹⁵ 김화순, “북한주민의 일자리유형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1호(2012). 상기 논문에서는 공식/비공식 일자리(formal/informal employment)란 개념을 주로 사용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기초로 수정한 것이다.

득원이 다양하다.¹⁶ 비공식일 종사자들은 소속 직장이 있는 ‘8.3 노동자’와 소속 직장이 없이 시장에서 일당노동자나 매대상인 등으로 일하는 ‘시장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8.3 노동자는 소속한 직장에 매달 일정액을 납부하면서 출근하지 않고 장사한다. 반면에, 시장형은 소속 직장이 없고 시장에 참가하여 소득을 얻는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주민의 시장참여 수준 및 소득원, 소속여부에 따라 북한주민이 일하는 형태를 배급형(bribery type), 부수입형(rationing type), 투잡스(two jobs), 8.3 노동자(8.3 laborers), 시장형(jangmadang type)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일유형별 집단이 어떤 특성을 지니며 집단 간의 상관이나 역학관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어떤 요인들이 북한주민들의 시장참여 형태 즉 일유형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제V장에서 로짓다항분석을 통해 일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할 것이다. 거주지역과 남녀 별 성차이 등과 같은 인구지리학적 요인도 일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시장화가 2000년대 중반 이래 지체상태에 있으므로 정치체제 요인의 영향이 큰 반면, 인적자본 요인의 영향은 매우 적거나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체제 요인이란 북한당국이 수행한 북한주민 성분 분류(핵심, 동요, 적대)¹⁷를 비롯하여 조선로동당원 여부, 북한에서 정치신분에 대한 주관적 계층의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¹⁶ 예컨대 전문직인 의사나 교사의 경우에도 대부분 퇴근 후 사적으로 진료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중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이중직업 종사자들이 많다.

“피82: 그걸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서비스를 받는다고 이제, 좋게 생각해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의사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나가 앉아 있는 것도 그렇지만 집에 들어와서 또 이제 가서 치료해주고 주사 놔주고 할 때가 더 버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복송 재일교 포출신 사례, 40대 사무직)”

¹⁷ 북한은 1958년부터 성분조사 사업을 펼치기 시작하여 1971년에 주민들을 핵심, 동요 그리고 적대의 3계층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그 결과 계층별 인구구성은 핵심계층 28%, 동요계층 45%, 그리고 적대계층 27%로 확인되었다. 중앙정보부, 북한의 인권탄압실태. 통일부 북한자료실 소장. 이승훈·홍두승,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에서 재인용.

Ⅲ. 분석 자료

1. 조사방법

본 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은 2012년 2월부터 북한을 2010년 이래 떠난 40명의 탈북주민을 대상으로 질적 조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응답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출신지역, 탈북동기를 비롯하여 응답자가 종사한 공식부문·직장생활 시 첫 직장, 주 직장, 근속기간과 공식부문의 직종, 업종, 장사품목, 직장출근율, 소득, 직업의식(출근율, 선호직업, 승진요인), 주관적 계층의식(정치신분계층)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2010년도 1월 1일 이후 북한을 떠난 사람 중 20대~59세 사이의 200명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 24일부터 2013년 1월 15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 유형·시장활동 시의 직종, 업종, 장사품목, 직장출근율, 북한주민이 선망하는 직업 등을 물어보았는데, 조사 내용은 <표 1>과 같다. 탈북주민을 통해 북한의 실태를 파악하려고 할 때 표집의 편향성(bias)문제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으며 본 조사자료도 이러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¹⁸ 단,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자료수집과 분석 시 아래 두 가지 방식을 취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탈북시점을 2010년 이후부터 2012년 9월 사이로 통제해서 최근 북한상황을 반영하고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조사는 자료수집 시 탈북시점을 통제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를 북한을 2010년 1월 1일 후 떠난 사람들로 제한하였는데, 북한을 떠난 지 수개월 안으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어서 북한에서의 기억이 비교적 생생하였다.

¹⁸ 최봉대는 탈북주민을 통한 북한연구가 갖는 한계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탈북자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조사 자료가 연구의 질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일반주민이나 간부층을 ‘표준적으로’ 대표하기에는 자료원의 속성 관련 편향성이 매우 심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자료원이 접경지대 두 개 도 정도의 거주민에 편중되어 있고 성별 구성에 있어 여성의 비율이 높고, 직업군별로는 ‘무직부양’이나 최하층 생계유지형 장사에 집중되어 있고, 학력면으로는 중학교 졸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봉대, “북한의 도시연구: 미시적 비교의 문제들과 방법적 보완의 모색,”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북한의 미래』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개소기념 학술회의, 2012.11.16), p. 19.

<표 1> 본 조사에 사용한 직업관련 설문내용

		설문 주제	문항
인적사항		성, 학력, 출생년도/월, 출신지역, 탈북연월, 입국연월, 탈북동기	• 기초 인적사항
일유형		유형분류/ 배급, 부수입, 공식/비공식 병행. 8.3부업, 별도의 벌이, 기타(무직, 부양, 요양)	• 탈북이전 1년 동안 선생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공식 부 문	공식부문/ 업종	첫 직장 명, 산업분류, 직종, 근속기간 주 직장 명, 산업분류, 직종, 근속기간	• 직장생활은 어떠했습니까? - 직장배치, 직장이동, 직장출근, 상사와의 관계, 배급상황 등
	공식부문/ 직종	고급관리직 외 9직종	• 북한에서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비 공 식	업종	장사품목 장사기간	• 시장활동은 어떠했습니까?
1년 소득액		원, 달러, 위안	• 탈북이전 3년간 평균 1년간 소득금액
노동 여건		재직한 기업소의 가동율	• 본인이 속한 기업소의 가동율
직 업 의 식	직장 승진	승진요인	• 직장에서 승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출근율	본인의 직장출근율	• 선생님 직장에서의 출근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직장동료의 직장출근율	
선호직업	전망있는 직업 1, 2 순위	• 북한에서 가장 전망 있다고 생각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다음 제2절에서 북한인구센서스의 북한주민 인적특성과 본 표본의 특성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본 조사의 표본이 지닌 특성을 분명히 하였다. 본 조사 표본은 북한 전체인구에 비해 고학력자(대졸자, 15%)와 여성의 비중이 많으며, 함북도와 양강도의 두 지역 주민이 61%를 차지한다. 또, 경제적으로 스스로를 중간계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비율은 60%에 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2. 표본의 특성

본 조사의 성별 특성을 보면, 남성(78명, 39.0%)에 비해 여성(122명, 61.0%)이 22% 많다.¹⁹ 연령별로는 40대가 63명, 31.5%로 가장 많다.

<표 2> 표본의 특성

항목	성				전체		북한 인구센서스(단위: 천)		
	남성		여성						
전체	78	39.0	122	61.0	200	100.0	100	23,350	
연령	20대	22	28.2	26	21.3	48	24.0	24.23	3091
	30대	22	28.2	28	23.0	50	25.0	30.42	3880
	40대	23	29.5	40	32.8	63	31.5	27.96	3567
	50대	11	14.1	28	23.0	39	19.5	17.37	2217
탈북 년도	2010	25	32.1	52	42.6	77	38.5		
	2011	41	52.6	60	49.2	101	50.5		
	2012	12	15.4	10	8.2	22	11.0		
지역	도시	60	76.9	82	67.2	142	71.0		
	농촌	18	23.1	40	32.8	58	29.0		
지역	강원도	4	5.1	5	4.1	9	4.5	6.3	1478
	양강도	22	28.2	40	32.8	62	31.0	3.1	719
	일본	0	0	1	0.5	1	.5	-	-
	자강도	1	1.3	1	0.8	2	1.0	5.6	1,300
	평안남도	4	5.1	4	3.3	8	4.0	17.4	4,052
	평안북도	2	2.6	5	4.1	7	3.5	11.7	2,729
	평양시	3	3.8	1	0.8	4	2.0	11.7	3,255
	함경남도	9	11.5	8	6.6	7	8.5	13.1	3,066
	함경북도	31	39.7	49	40.2	80	40.0	10	2,327
	황해북도	1	1.3	4	3.3	3	1.5	9.1	2,114
	황해남도	0	0	4	3.3	4	2.0	9.9	2,310
무응답	1	1.3	2	1.6	3	1.5	-	702	

¹⁹ 일반적으로 탈북민 조사의 경우 탈북주민 모집단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70%정도 되며, 본 조사는 비교적 남성이 많이 표집된 조사임을 알 수 있다.

항목	성				전체		북한 인구센서스(단위: 천)	
	남성		여성					
학력	고등중미만	5	6.4	5	4.1	10	5.0	24.3
	고등중졸	44	56.4	78	63.9	122	61.0	59.4
	전졸	18	32.1	20	16.4	38	19.0	7.6
	대졸	11	14.1	19	15.6	30	15.0	8.8
당원	당원	32	41.6	4	3.3	36	18.1	
	비당원	45	58.4	118	96.7	163	81.9	

성별 연령분포를 보면 남성은 20대와 30대의 비중이 22명, 29.0%로서 가장 높고 여성은 40대의 비중이 40명, 3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성별 연령분포의 차이가 크다. 표본의 탈북년도를 보면 2010년 비중이 38.5%(77명), 2011년도 비중이 50.5%(101명)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2012년도 비중이 11.0%(22명)으로 가장 적다.

응답자들의 출신지역은 함경북도가 압도적으로 많아 80명(40.0%)이고, 양강도가 62명(31.0%)로 두 지역 출신자가 전체 표본 수의 71.0%를 차지한다. 표집의 편향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양강도 출신의 지역주민이 많다는 점이다. 양강도는 북한주민 중 3.1%를 차지하지만, 이 조사표본 중 양강도 출신 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무려 10배에 달한다. 또, 함경북도 주민이 본 조사에서는 40.0%의 비중을 점하며 이는 모집단의 비중(10.0%)에 비교하면 4배나 된다. 본 조사표본 중 양강도와 함경북도를 제외한 타 지역출신들은 29.0%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한 주민 모집단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함경북도와 양강도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이 전체의 73.8%를 차지한다.

본 조사의 결과와 북한인구센서스의 연령분포를 보면 본 조사의 표본과 북한인구센서스의 연령대 인구분포가 흡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의 고등중학교 졸업자의 비중은 표본과 북한주민 전체의 비율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58.0%로서 2008년도 북한인구센서스에서 59.4%라는 응답결과와 거의 유사하다. 단,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는 사람의 비중이 북한주민 인구센서스에서는 20.8%이지만 본 조사에서는 5.0%로 15% 정도 적다. 반면, 대졸자나 전문학교 졸업자의 비중은 북한주민 모집단의 평균에 비해 표본이 2~3배 가량 높다. 특히, 조사대상집단의 대졸자 비중은 15.0%로서 북한주민 인구의 대졸자 비중(8.8%)과 비교 시 2배 가량 높다.

조사 표본이 북한주민 일반에 비해 여성이 많고,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에 편중된 점, 고학력에 편중된 점 등은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변수인 북한주민의 “일유형(work type)”을 ‘공식/비공식부문’을 기준으로 하여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²⁰ 분석에 사용한 주요변수는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변수에 대한 설명 및 속성

변수명		변수 설명(변수 값)	
종속 변수	일유형(work type)	공식일(1), 이중일(2), 비공식일(3), 무직 및 비경활(4)	
		1) 배급, 2) 부수입, 3)공식/비공식 병행, 4) 8.3 5)별도의 벌이, 6) 무직, 부양, 요양 등, 7) 기타	
독립 변수	인구학적 특성	성	남성(1), 여성(2)
		연령(세)	만 나이
	지역 특성	거주지역	도시(1), 농촌(2)
	인적자본	교육수준	고등중학교 미만(1), 고등중학교 졸업(2), 전문학교 졸(3), 대졸(4)
	소득	1년 소득	1년 평균 소득(시점은 탈북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지점)*
	정치특성	당원여부	당원(1), 비당원(2)
		정치신분	상층(1), 중층(2), 하층(3)
	토대	핵심계층(1), 동요계층(2), 적대계층(3), 모른다(4)	

가. 종속변수: 일유형(work type)

공식일(formal work)

- 배급형: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국가의 배급을 통해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

²⁰ 소득원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일곱 가지(①배급, ②부수입형, ③투잡스, ④이중형, ⑤ 8.3 노동자, ⑥시장형 ⑦비경활 외)로 재분류하였다. 분석 시는 ①과 ②형을 합해 공식일유형, ⑤와 ⑥형을 합해 비공식일 유형으로 분류하여 일유형을 네 종류(공식, 이중, 비공식, 비경활 외)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아래와 같다.

탈북이전 1년 동안 선생님은 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 1) 배급, 2) 부수입, 3)공식/비공식 병행, 4) 8.3 5)별도의 벌이, 6) 무직, 부양, 요양 등 7) 기타

하는 형태. 과거 북한주민에게 가장 일반화된 형태였지만, 현재는 군인, 수용소 관리와 같은 보안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며, 시장에 참여하지 않음.

- **부수입형:** 직업지위에서 가진 권한 혹은 권력을 활용하여 불법적인 시장활동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이익을 나누는 형태로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이는 다시 생계형과 부수입형으로 나눌 수 있음. 표면적으로는 시장에 참여하지 않지만 불법적 행위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에서 얻어진 이득을 취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

이중일(both formal and informal work) 종사형= 공식일과 비공식일을 병행

- **이중일 종사자:** 낮에는 소속기업소에 출근하여 일을 하지만 퇴근 후 혹은 휴가를 내어서 시장활동에 참가.

비공식일(informal work) 종사형

- **시장형:** 장마당 등에서 장사나 일당노동자로 일하여 생계를 유지함. 시장에 전면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이다.
- **8.3 노동자²¹:** 기업의 노동력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경제외적 강제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업에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의 계약관계를 일컫는다. 소속기업에 일정액의 돈을 납부하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

기타

무직자와 비경제활동참가자를 포함한 유형. 예를 들어 병으로 요양 중이거나 장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거나 육아나 출산 등으로 일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 등을 포괄하는 경우로서 일반적 의미의 비경제활동인구와는 무직자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상이함. 분석시 제외.

²¹ 이석기, “북한의 노동: 2000년대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2012. 11), p. 83.

나. 독립변수

인구학적 요인

일유형과 북한주민의 인구학적 변수간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성과 연령변수를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성(=0), 여성(=1)으로 구분하여 범주형 변수로 사용하였고, 연령은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인적자본 요인

통상 종사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을 경력변수로 인적자본 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1990년대 이후에 북한의 공장가동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속기간’을 경력변수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학력’ 변수만을 인적자본 변수로 사용하였다. 학력은 고등중학교 미만, 고등중학교 졸업, 전문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의 네 종류로 구분하여 범주형 변수로 사용하였다.

거주지역 요인

응답자에게 거주지가 농촌인지 도시인지를 질문하였는데, 응답자가 제일 마지막으로 거주한 곳을 분석시 사용하였다.

정치체제 요인

‘정치적 신분’이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 ‘당원/비당원 여부’와 집안의 ‘토대’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질문하여 이를 정치체제 요인 변수로 사용하였다. 세 번째 질문은 자신의 토대가 어디에 속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북한주민이 약간 명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모른다’는 선택지를 추가하였다.²²

²² 선생님은 당원이십니까? (당원, 비당원)
북한에서 선생님은 정치신분을 기준으로 할 때, 다음 중 어느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 중, 하)
북한당국에 의해 분류된 선생님 집안의 신분적 토대는 어디에 속합니까?
(핵심, 동요, 적대계층, 모른다)

IV. 일유형별 특성

1. 기초통계

본 장에서는 북한주민의 다양한 시장참여 형태 즉 일유형(work type)에 따라 상이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일유형(work type)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정치체제 요인, 인적자본 요인, 인구학적 요인, 지역 요인). 각각의 요인들이 일유형(공식일, 이종일, 비공식일)에게 상이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독립변수들은 각각의 특성변수들이 되며, 종속변수는 (공식/비공식/이종) 일유형이 된다.

본 절에서 제시하는 이변량 분석(bivariate analysis)과 사회통계분석은 각 직업 집단별로 사용되는 변수에 따른 규모를 보여줌과 동시에 변수들의 연관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해당집단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표 4>는 종사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일유형 집단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인적특성별로 일유형(work type)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은 122명으로서 비공식일 57.4%(70명)>이종일 23.0%(28명)>공식일 8.2%(10명)이었고, 남성은 총 78명으로 비공식일 35.9%(12명)>이종일 34.6%(27명)>공식일 15.4%(28명)의 순이었다. 비공식일 종사자의 수가 공식일 종사자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카이검정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비공식일 종사자가 많았다($p=0.025<.05$).

연령대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30대(54.0%)와 50대(59.0%)의 비공식일 종사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종일 종사자들의 연령대는 30~40대가 30%대로 가장 높다. 20대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5.0%)가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다($p=.033<.05$).

그 다음 학력 별로 어떤 일을 했는지 교차분석하였다. 고등중학교 미만은 비공식일을 한 비율이 50.0%였고, 공식일을 가진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비공식일 비율은 51.6%였고, 공식일을 한 비율은 10.7%였다. 전문학교졸업생의 경우는 47.4%가 비공식일을 하고 있었고, 이종일을 하는 경우가 36.8%, 공식일을 한 경우는 7.9%에 불과했다. 대졸이상은 공식일을 하는 비율이 16.7%로 네 집단 중 가장 높았으며, 비공식일을 하는 경우가 40.0%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카이검정결과 학력과 일유형 변수 간에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반면, 정치체제 요인인 당원여부, 정치신분, 토대(핵심, 동요, 적대)요인은 일유

형과 교차하였을 때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당원** $p=.002<.01$, 정치신분* $p=.011<.05$, 토대* $p=.018<.05$). 직위를 이용한 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당원이거나 핵심계층인 경우가 많았다.

<표 4> 표본의 기초통계

(단위: %, 명)

항목		공식	이중일	비공식 일	비경활 외	전체 % (명)	카이검정		
성	남성	15.4	34.6	35.9	14.1	100(78)	9.332	.025	*
	여성	8.2	23.0	57.4	11.5	100(122)			
연령대	20대	10.4	29.2	35.4	25.0	100(48)	18.239	.033	*
	30대	4.0	30.0	54.0	12.0	100(50)			
	40대	14.3	31.7	49.2	4.8	100(63)			
	50대	15.4	15.4	59.0	10.3	100(39)			
탈북년	2010	5.2	23.4	51.9	19.5	100(77)	14.997	.020	*
	2011	12.9	33.7	44.6	8.9	100(101)			
	2012	22.7	13.6	59.1	4.5	100(22)			
지역도	강원도	0.0	33.3	66.7	0.0	100(9)	31.479	.543	
	양강도	4.8	22.6	53.2	19.4	100(62)			
	일본	0.0	0.0	100.0	0.0	100(1)			
	자강도	12.5	37.5	37.5	12.5	100(2)			
	평남도	12.5	37.5	37.5	12.5	100(8)			
	평북도	0.0	57.1	42.9	0.0	100(7)			
	평양시	25.0	50.0	25.0	0.0	100(4)			
	함남도	17.6	23.5	47.1	11.8	100(17)			
	함북도	15.0	32.5	42.5	10.0	100(80)			
	황해남도	0.0	0.0	100.0	0.0	100(4)			
	황해북도	33.3	0.0	66.7	0.0	100(3)			
지역	도시	12.4	28.1	46.3	13.2	100(121)	1.266	.737	
	농촌	9.0	25.6	53.8	11.5	100(78)			
교육	고등미만	10.0	30.0	50.0	10.0	100(10)	5.782	.762	
	고등중졸	10.7	23.0	51.6	14.8	100(122)			
	전졸	7.9	36.8	47.4	7.9	100(38)			
	대졸	16.7	33.3	40.0	10.0	100(30)			

항목		공식	이종일	비공식 일	비경활 외	전체 %(명)	카이검정		
당원	당원	25.0	38.9	27.8	8.3	100(36)	14.782	.002	**
	비당원	8.0	24.5	54.0	13.5	100(163)			
신분	상층	27.8	22.2	33.3	16.7	100(18)	16.542	.011	*
	중층	15.5	25.8	44.3	14.4	100(97)			
	하층	2.4	27.5	49.0	9.4	100(85)			
토대	핵심계층	14.5	26.5	45.8	13.3	100(83)	19.983	.018	*
	동요계층	10.9	34.4	43.8	10.9	100(64)			
	적대계층	3.7	14.8	81.5	0.0	100(27)			
	모르겠다	7.7	26.9	38.5	26.9	100(26)			
직종	관리직	33.3	33.3	33.3	0	100(3)	32.757	.205	
	전문가/준전문가	10.5	23.7	52.6	13.2	100(38)			
	사무직	28.6	38.1	23.8	9.5	100(21)			
	서비스	26.7	33.3	20.0	20.0	100(15)			
	농수산임업	6.2	37.5	50.0	6.2	100(16)			
	기술직	7.1	32.1	53.6	7.1	100(28)			
	기계조립	14.3	28.6	57.1	0	100(7)			
	단순노무	3.3	23.3	63.3	10.0	100(30)			
	군인	16.7	33.3	41.7	8.3	100(12)			
	학생, 주부 외	0.0	13.6	63.6	22.7	100(22)			

2. 일유형별 직종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직업현황을 공식일 종사자, 이종일 종사자, 비공식일 종사자별로 직종과 업종을 분류하여 종사하는 일유형(공식/비공식)에 따라 직업적 특성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의 직업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직업 현황

부문	직종			비공식일의 종류			
	항목	비중(%)	빈도	항목	비중	빈도	
공식 일	전체	100	22				
	고급관리직	4.5	1				
	전문직/준전문직	18.2	4				
	사무직	27.3	6				
	서비스직	18.2	4				
	농수산업직	4.5	1				
	기술직	9.1	2				
	기계조립	4.5	1				
	단순노동	4.5	1				
	군인	9.1	2				
이중 일	전체	100	55	전체	100	55	
	고급관리직	1.8	1	해외무역	5.5	3	
	전문직/준전문직	16.4	9	도소매	공산물	10.9	6
					농수산물 외 식품	20.0	11
					기타	9.1	5
	사무직	14.5	8	제조업	-	-	
	서비스직	9.1	5	서비스	14.5	8	
	농수산업직	10.9	6	돈장사	-	-	
	기술직	16.4	9	농업	12.7	7	
	기계조립	3.6	2	광업	1.8	1	
	단순노동	12.7	7	합계	74.5	41	
	군인	7.3	4	무응답	25.5	14	
	학생, 주부, 질병	5.5	3				
무응답	1.8	1					
비공식 일				전체	100	98	
				해외무역	16.3	16	
				도소매	공산물	19.4	19
					농수산물 외 식품	19.4	19
					기타	10.2	10
				제조업	4.1	4	
				서비스	4.1	4	
				농업	5.1	5	
				광업	4.1	4	
				운송	-	-	
				돈장사	-	-	
				무응답	17.3	17	

가. 공식일 종사자들의 직종

공식직업에만 종사한 사람은 총 22명(100.0%)이었는데, 직종을 보면 사무직 집단 27.3%(6명)>전문가/준전문가, 서비스직 18.2%(4명)의 순으로 많고, 고급관리직과 농수산임업직, 기계조립과 단순노무직은 각 4.5%(1명)이다.

나. 이중일 종사자들의 직업특성

공식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비공식일을 하는 집단은 어떤 직업적 특성을 가졌는지 알아보았다. 공식직업에서 일하면서 비공식일을 한 사람의 규모는 총 55명이었으며, 이들의 직종은 아래와 같다. 전문가/준전문가 집단이 가장 많은 16.4%(9명)이었고, 그 다음이 기술직으로서 16.4%(9명), 사무직은 14.5%(8명)이었고, 단순노무는 12.7%(7명)이었다. 관리직의 수가 가장 적어 1.8%(1명)이었다.

다. 비공식일 종사자들의 업종

비공식일에 종사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수는 총 98명(100.0%)이었으며, 이들 중 업종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의 수가 많다(17명, 17.3%). 이들이 비공식일을 하였을 때의 업종을 보면, 도소매 일을 한 경우가 49%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과 서비스직이 4.1%로서 그 다음 순이었다. 농업을 한 경우도 5.1%(5명)이었다. ‘북한에서 어떤 종류의 비공식 일을 했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응답하기를 기피하는 무응답자 비율이 전체의 17.3%(17명)에 달했다.²³

3. 일유형별 체제불만 수준의 차이

분산분석 실시 결과, ‘체제불만’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확률이 .000으로 유의하였다($p=.000<.005$). 체제불만의 수준은 비경활(2.88)이 가장 낮았고, 공식일(3.00)<이중일(3.76)<비공식일(3.84)의 순으로 비공식일 종사자의 체제불만이 가장 높았다(아래 <표 6> 참조).

흥미로운 부분은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이 중첩되는 회색지대에 위치한 이중

²³ 응답을 기피하는 이유는 마약상 등 비법적 혹은 불법적인 일을 했던 경우, 혹은 자신의 북한에서 했던 일을 알리기 싫은 일을 하였을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추후 인터뷰를 통해 추가적인 확인을 요한다.

일 종사자들의 체제불만 수준이 3.76으로 비공식일유형의 체제불만수준 3.84에 거의 근접하였다는 점이다. 반면, 공식일 종사자들의 체제불만은 3.0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주민들 중 다수를 점하는 비공식일 종사자와 이중일 종사자의 체제불만수준을 드러내는 지표로서 그 의미가 크며 추후 소득과 연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서 기타로 분류된 비경활자나 무직자 25명의 체제불만 정도는 2.88로 체제불만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비경제활동자의 체제불만이 낮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였다. 향후 질적 연구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표 6> 일유형별 체제불만의 정도

일유형	빈도	표준편차	체제불만 정도
공식일	22	1.380	3.00
이중일	55	1.170	3.76
비공식일	98	1.128	3.84
기타(비경활 외)	25	1.236	2.88
합계	200	1.231	3.61

V. 북한주민의 일유형 결정요인 분석

앞 절에서 이변량 분석을 통해 인구학적, 지역 요인 및 정치체제 요인들이 북한 주민의 시장참여 형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변량 분석은 성, 연령, 학력 등 개별 변수별로 시장참여형태에 주는 영향을 살피는 데에는 적절하지만 타 변수들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여러 독립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황에서 이들 변수들이 일유형에 미치는 가능성을 다변량 분석(multivariate analysis)을 통해 분석한다.

종속변수는 일유형(공식일, 이중일)으로 하고, 이중일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이중일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한 이유는 공식일 집단과 비공식일 집단의 대조적 특성을 보다 선명하게 대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분석결과는 이중일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어떤 특성 요인들이 공식일/비공식일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일유형에 영향을 주는 특성 요인인 독립변수로서 앞서 제Ⅲ장에서 제시했던

네 가지 특성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즉, 인구학적 변수, 지역 변수, 인적 자본 변수, 정치특성 변수의 네 가지 요인이다. 각 개별특성을 구분하여 분석하기 위해 요인들을 순차적으로 모형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모두 6개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즉, 일유형을 종속변수로 하여 [모형 1]은 성과 연령을 포함한 인구학적 요인들만 살펴보고, [모형 2]에서는 지역요인을 [모형 3]에서는 인적 자본 요인들을 [모형 4~6]에서는 정치체제 요인들을 당원여부, 정치신분, 토대변수를 차례로 투입하였다. 본 장에서의 분석 목적이 일유형별로 분화에 영향을 미친 여러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비교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집단 즉, 공식, 비공식별로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두 개 집단 간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1. 일유형별 영향요인

가. 공식일유형

인구학적 요인만으로 구성된 [모형 1]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식일을 할 확률을 1.05배 승산을 높였다($p=.063<.1$). 남성인 경우 여성에 비해 공식일을 할 승산이 1.36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인구학적 요인에 출신지역 요인(도시/농촌거주)이 추가된 [모형 2]에서도 연령의 효과는 지속되어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공식일을 할 승산은 1.04배 높아졌다($p=.063<.1$). 남성인 경우 이중일보다 공식일을 할 확률이 1.292배 높았으며 도시에 살았던 경우가 농촌에 거주했던 경우보다 공식일을 할 확률이 1.979배 높았으나 성, 지역 요인은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인적 자본 요인(학력)이 추가된 [모형 3] 분석결과 인적 자본 연령효과만이 유일하게 나타났고($p=.043<.05$), 성 요인, 학력 요인, 거주지역 요인 어느 것도 공식일에 종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변수인 정치체제 요인의 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관측하기 위해 세 개의 정치체제 요인 변수를 하나씩 추가하여 차례로 [모형 4(당원)], [모형 5(정치신분)], [모형 6(토대)]을 분석하였다. [모형 4]는 [모형 3]에 당원요인을 추가한 것인데, 여전히 연령효과만이 유효했고 성, 학력, 당원여부 요인 모두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모형 1~4]까지 모두 연령효과만 나타난 것이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모형 5]에서 정치신분 요인(상, 중, 하층)을 독립변수로 투입했을 때 일어났다. 정치신분이 상층인 경우에 공식일을 할 승산이 18.096배 증

가하였고($p=.006<.005$), 중층의 경우에도 공식일을 할 승산이 7.761배나 증가하여($p=.015<.05$) 상층 혹은 중층수준의 정치신분이 공식일을 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적어도 하층은 아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 개개인의 가족적 배경인 토대는 공식일에 종사하는 데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까? [모형 6]에서 토대변수(핵심, 동요, 적대)를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토대변수 중 핵심, 적대, 동요계층 모두가 종속변수인 공식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일유형에 미치는 토대변수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공식일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연령이 많을수록 정치신분이 상층이나 중층인 경우 공식일에 종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 비공식 일유형

성과 연령 변수를 투입하여 [모형 1]을 만들었는데, 분석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비공식일을 할 확률이 56.4% 낮았지만($p=.019<.05$), 연령변수가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지역 요인(도시/농촌거주)이 추가된 [모형 2]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비공식일을 할 확률이 57.1% 낮았으며($p=.018<.05$), 도시에 사는 경우 농촌에 사는 경우에 비해 이중일과 비교해서 비공식일을 할 확률이 1.123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다. 여전히 성효과는 [모형 1]과 마찬가지로 지속되었지만 거주지역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모형 3]에서는 학력변수를 추가하여 인적자본 요인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고졸인 경우 비공식일을 할 승산이 2.462배 높아졌으나($p=.084<.1$), 대졸이나 고등중학교 미만의 학력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 앞의 [모형 1]이나 [모형 2]와는 달리 성효과 외에 연령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공식일을 할 가능성이 높았고($p=.042<.05$), 남성은 여성과 비교하여 비공식일을 할 승산이 55.8% 낮았다($p=.024<.05$).

<표 7> 일유형 다항로짓분석: 인구지리학적 요인

	모형1						모형2						
	공식			비공식			공식			비공식			
	추정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추정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추정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추정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상수항	-3**	1.13		-0	0.71		-3**	1.23		-0	0.74		
인구 학적	성												
	연령	0.05+	0.03	1.05	0.03	0.02	1.03	0.05+	0.03	1.05	0.03	0.02	1.03
	남성	0.31	0.52	1.36	-1*	0.35	0.44	0.26	0.52	1.29	-1*	0.36	0.43
	여성*	0	.	.	0	.	.	0	.	.	0	.	.
지역	지역												
	도시						0.68	0.63	1.98	0.12	0.38	1.12	
	농촌*						0	.	.	0	.	.	
N	175												
-2 LL	202.455						237.956						
Cox R ²	.074						.089						

+p<.1, *p<.01, **p<.005, ***p<.001

*기준집단은 여성, 농촌임.

<표 8> 일유형 로짓다항분석: 인적 자본 및 정치요인

	모형3						모형4						
	공식			비공식			공식			비공식			
	추정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추정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추정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추정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상수항	-4*	1.46		-1	0.98		-3*	1.47		-2+	1.01		
인구 학적	연령	0.05*	0.03	1.06	0.04*	0.02	1.04	0.05+	0.03	1.05	0.05*	0.02	1.05
	남성	0.34	0.53	1.4	-1*	0.36	0.44	0.05	0.64	1.05	-0	0.41	0.67
	여성*	0	.	.	0	.	.	0	.	.	0	.	.
지역	지역												
	도시	0.67	0.64	1.96	0.19	0.39	1.21	0.62	0.65	1.86	0.29	0.39	1.33
	농촌*	0	.	.	0	.	.	0	.	.	0	.	.
인적 자본	학력												
	미만	0.17	1.33	1.19	0.84	0.91	2.31	0.18	1.33	1.2	0.8	0.91	2.22
	고졸	0.28	0.67	1.32	0.9+	0.52	2.46	0.28	0.68	1.32	0.94+	0.53	2.55
	전졸	-1	0.86	0.48	0.26	0.58	1.3	-1	0.87	0.52	0.4	0.6	1.5
	대졸*	0	.	.	0	.	.	0	.	.	0	.	.
정치 체제 요인	당												
	당원						0.4	0.7	1.49	-1*	0.54	0.34	
	비당*						0	.	.	0	.	.	
(N)	175												
-2 III	268.845						265.595						
Cox R ²	.109						.140						

+p<.1, *p<.01, **p<.005, ***p<.001

*기준집단은 여성, 농촌, 대졸, 비당원임.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변수인 정치체제 요인의 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관측하기 위해 세 개의 정치체제 요인 변수를 하나씩 추가하여 [모형 4(당원)], [모형 5(정치신분)], [모형 6(토대)]을 검토하였다. 당원변수를 추가한 [모형 4]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공식일을 할 가능성이 5% 높아졌다($p=.017<.05$). 또한 학력이 고등중학교 졸업인 경우에는 비공식일에 종사할 확률이 2.55배 높아졌고($p=.076<.1$), 당원인 경우는 당원이 아닌 경우에 비해 비공식일을 할 확률이 67% 낮았다.

<표 9> 일유형 로짓다항분석: 정치체제 요인(당원·정치신분·토대)

	모형5						모형6						
	공식			비공식			공식			비공식			
	추정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추정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추정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추정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상수항	-5**	1.68		-2+	1.05		-5**	1.77		-2*	1.15		
인구학적	성												
	연령	0.05	0.03	1.05	0.05*	0.02	1.05	0.06+	0.03	1.06	0.06**	0.02	1.06
	남성	-0	0.69	0.95	-0	0.41	0.66	-0	0.71	0.98	-0	0.45	0.65
	여성*	0	.	.	0	.	.	0	.	.	0	.	.
지역	지역												
	도시	0.2	0.7	1.22	0.31	0.4	1.37	0.24	0.71	1.27	0.39	0.42	1.48
	농촌*	0	.	.	0	.	.	0	.	.	0	.	.
인적자본	학력												
	미만	0.94	1.44	2.56	0.76	0.93	2.14	1.03	1.48	2.81	1.17	1	3.21
	고졸	0.67	0.72	1.95	0.98+	0.54	2.66	0.72	0.73	2.06	1.1*	0.56	3.01
	전졸	-0	0.9	0.64	0.47	0.61	1.59	-1	0.91	0.61	0.51	0.63	1.66
	대졸*	0	.	.	0	.	.	0	.	.	0	.	.
정치체제요인	당												
	당원	0.64	0.77	1.9	-1*	0.54	0.33	0.55	0.79	1.73	-1*	0.58	0.27
	비당*	0	.	.	0	.	.	0	.	.	0	.	.
	신분												
	상	2.9**	1.05	18.1	-0	0.73	0.62	3.34**	1.19	28.2	-0	0.8	0.88
	중	2.05*	0.84	7.76	0	0.39	1	2.37**	0.9	10.7	0.39	0.42	1.48
	하*	0	.	.	0	.	.	0	.	.	0	.	.
	토대												
	핵심							-1	1.06	0.38	-0	0.65	0.81
중요							-1	1.05	0.39	-1	0.63	0.59	
적대							0.22	1.49	1.24	1.47+	0.8	4.34	
모름*							0	.	.	0	.	.	
(N)	175												
-2 LL	269.384						268.473						
Cox R ²	.213						.260						

+ $p<.1$, * $p<.01$, ** $p<.005$, *** $p<.001$

*기준집단은 여성, 농촌, 대졸, 비당원, 하층, 토대 모름임.

정치신분 변수를 추가한 [모형 5]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공식일을 할 가능성이 1.047배 높아졌다($p=.017<.05$). 또한 학력이 고등중학교 졸업인 경우 비공식일에 종사할 확률이 2.65배 높아졌고($p=.071<.1$), 당원인 경우는 당원이 아닌 경우에 비해 비공식일을 할 확률이 62% 낮았다($p=.038<.05$). 정치신분이 상층인 경우 비공식일을 할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6]에서는 토대요인(핵심, 동요, 적대)를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6]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공식일을 할 가능성이 1.059배 높았다($p=.008<.01$). 인적자본 요인의 효과였다. 고등중졸의 경우 대졸과 비교하여 비공식일을 할 확률이 3.011배 증가하였으며($p=.048<.05$), 토대가 적대계층인 경우 비공식일을 할 확률이 4.344배나 높아졌다($p=.065<.01$). 요약하면, 이중일집단을 기준집단으로 분석한 결과 비공식일에 종사할 가능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일수록, 고졸일수록, 당원이 아닐수록, 토대가 적대계층일수록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비공식일 종사자가 북한사회의 주류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 이중일 유형

성과 연령 변수를 투입하여 [모형 1]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이중일을 할 확률이 2.295배 높았다($p=.019<.05$). 그러나 연령변수가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지역 요인(도시/농촌거주)이 추가된 [모형 2]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이중일을 할 확률이 2.33배 높았으며($p=.018<.05$), 지역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모형 3]에서는 학력변수를 추가하여 인적 자본 요인의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고졸인 경우 대졸자와 비교하여 이중일을 할 승산이 60% 낮았다($p=.084<.1$). 그러나 전문졸이나 고등중학교 미만의 학력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 앞의 [모형 1]이나 [모형 2]와는 달리 성과 외에 연령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이중일을 할 가능성이 5% 낮아졌으며($p=.042<.05$), 남성은 여성과 비교시 이중일을 할 확률이 2.261배 높았다($p=.024<.05$).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변수인 정치체제 요인의 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관측하기 위해 세 개의 정치체제 요인 변수를 하나씩 추가하여 [모형 4(당원)], [모형 5(정

치신분)], [모형 6(토대)]을 분석하였다.

당원 변수를 추가한 [모형 4]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중일을 할 확률이 5% 낮아졌다($p=.017<.05$). 또한 학력이 고등중졸인 경우 이중일에 종사할 확률이 61% 낮아졌고($p=.076<.1$), 당원인 경우는 당원이 아닌 경우에 비해 이중일을 할 확률이 2.986배 높았다($p=.044<.05$).

정치신분 변수(상, 중, 하)를 추가한 [모형 5]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중일을 할 가능성이 5% 낮아졌다($p=.017<.05$). 또한 학력이 고등중졸인 경우 이중일에 종사할 확률이 63% 낮아졌고($p=.071<.1$), 당원인 경우는 당원이 아닌 경우에 비해 이중일을 할 확률이 3.077배 높았다($p=.038<.05$). 정치신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형 6]에서는 토대요인(핵심, 동요, 적대)를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6]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중일을 할 확률이 6% 낮았다($p=.008<.01$). 인적자본 요인은 고졸의 경우 대졸과 비교하여 이중일을 할 확률이 67% 감소하였으며($p=.048<.05$) 당원인 경우는 당원이 아닌 경우에 비해서 이중일에 종사할 확률이 3.724배 증가하였다($p=.023<.05$). 토대가 적대계층에 속한 경우, 이중일에 종사할 확률이 67% 낮아졌다($p=.065<.01$).

요약하면, 비공식일에 종사할 가능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일수록, 고졸일수록, 당원이 아닐수록, 토대가 적대계층일수록 높았다(기준집단: 이중일집단). 이 같은 결과는 비공식일 종사자가 북한사회의 주류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VI. 결론 및 북한체제 변화에 주는 함의

1. 결론

앞에서의 분석결과 이제 본 논문의 결론에 이르렀다. 서론에서 제기했던, 북한 주민들은 시장참여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집단화 혹은 분화되었는가? 어떤 요인에 의해 그 구분은 나누어지게 되었는가? 그 결과 형성된 집단별 특성이나 의식은 어떠한가? 지난(至難)한 시장화 과정을 경험한 주민들이 갖게 된 일 형태 및 의식상의 변화가 북한의 체제전환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특히 공식직장에 몸은 있지만 비공식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집단의 체제불만 수준은 어떠한가? 분석결과와 아래와 같다.

첫째, 북한주민들은 시장참여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집단화 혹은 분화되었으며, 어떤 요인에 의해 일유형이 나누어지는가?

조사대상자를 시장참여수준과 형태에 따라 공식일 유형, 비공식일 유형, 이중일 유형의 일유형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졌는데, 직종이나 의식면에서 집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들 세 집단을 소득원과 소속여부에 따라 다시 ‘공식일(뇌물, 배급), 공식과 비공식일을 병행하는 투잡스, 8.3노동자군, 장사, 무직과 비경제활동동군’의 다섯 종류의 일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공식일에 종사할 가능성은 연령이 많을수록 정치신분이 상층이나 중층인 경우 높았다. 비공식일에 종사할 가능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일수록, 고졸일수록, 당원이 아닐수록, 토대가 적대계층일수록 높았다(이중일집단=기준집단). 이 같은 결과는 비공식일 종사자가 북한사회의 주류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중일에 종사할 가능성은 연령이 감소할수록, 남성일수록, 고졸이 아닐수록, 당원일수록 토대가 적대계층이 아닐수록 높다(비공식일유형=기준집단).

둘째, 정치체제 요인이 일유형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대로 인구지리학적, 인적자본 요인보다 정치체제 요인은 북한주민의 일유형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즉, 공식일유형에는 정치체제 요인 중 신분 요인(상층, 중층)이 영향을 미쳤지만, 반대로 비공식일유형에는 정치체제 요인 중 토대 요인(적대계층)과 당원 요인(비당원)이 영향을 미쳤다. 한편, 당원이고 적대계층이 아닐수록 이중일에 종사할 승산이 높았다.

셋째, 시장화 과정에서 노동형태와 의식에 나타난 주민들의 변화가 북한의 체제전환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일유형별 체제불만의 수준은 어떠한가?

체제불만의 수위는 공식일(3.00)<이중일(3.76)<비공식일(3.84)의 순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001$). 체제불만이 가장 높은 일유형은 비공식일 유형이었고, 체제불만이 제일 낮은 일유형은 공식일 유형이었다. 한편, 이중일 유형은 체제불만의 수위는 중간이었으나 비공식일 유형과 근접한 수준의 불만을 갖고 있었다.

공식과 비공식일 종사자의 중간지대에 존재하던 이중일 유형들이 비공식일유형에 근접한 수준의 높은 체제불만을 드러낸 점은 북한의 체제전환에 중요한 함의를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앞에서의 세 가지 분석결과를 토대로 일유형별 북한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공식일 유형 종사자들은 정치신분이 상층 혹은 중층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들은 시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직업직위를 이용한 부수입 혹은 뇌물 혹은 배급을 통해 소득을 얻었으며, 이들의 체제불만의 수위가 가장 낮았다.

비공식일 유형에 속한 주민들은 기존체제에서 기회구조가 상대적으로 박탈된 여성, 적대계층, 비당원, 고졸자들이 다수이며, 시장에 직접 참가하여 돈벌이를 하였으며 가장 높은 수준의 체제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중일 유형들은 비공식일 유형과는 반대로 연령이 적을수록 남성일수록 고졸이 아닐수록 당원일수록 적대계층이 아닌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은 비록 공식일을 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지만 북한사회가 제시했던 출세를 위한 규범(당원, 고학력, 토대)에 근접했거나 적어도 그러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중일 유형의 체제불만 수위는 비공식일 유형에 거의 근접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주민들 중 다수를 점하는 비공식일 종사자와 이중일 종사자의 체제불만수준을 드러내는 지표로서 그 의미가 크며 추후 소득변수 등과 연계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

2. 북한체제 변화 논의에 주는 본 연구의 함의

최근 북한체제의 이행방향을 둘러싼 경제학적 시각과 정치학적 시각의 대립은 과거 이행기 사회주의를 둘러싸고 진행된 동구권과 중국연구에서 진행된 시장이행가설 혹은 비공식가설 對 지배엘리트 연속성가설 간의 이론적 논쟁을 연상케 하며, 심층적인 실증분석을 요청하고 있다.

“경제학적 접근은 시장을 정권과 계획경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데 비해 정치학적 접근은 시장확대가 정권유지에 기여하는 측면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박형중, 2012).”²⁴ 경제학적 접근은 비공식가설 혹은 시장이행가설로

²⁴ 박형중,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2012).

대표되는데, 김병연(2012)²⁵은 가설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5년 이후를 북한은 시장과 정부 간의 암묵적 균형시기로 정의하고 향후 시장과 정부 간의 밀고 당기는 관계 속에서 폭발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반면, 정치학적 접근을 표방하는 박형중은 “공식과 비공식이 섞여있고, 계획과 시장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기 때문에, “비공식경제의 확대가 계획경제를 침식하며, 정권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확대가 정권유지에 역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논의들은 시장과 국가라는 체제전체를 논하는 거시연구를 관통하는 질문들로 시장화에 수반되는 재계층화와 계층 변화추이에 대한 관측을 요청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시장화과정에서 분화된 북한주민의 일형태와 의식을 측정한 실증적 사례연구로서 ‘일반주민들이 시장에서 일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북한주민이 일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앞으로의 북한체제 변화의 방향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주민들의 일세계에 일어나는 일유형의 분화와 의식의 변화의 단면을 최근 탈북한 북한주민의 자료를 계량연구방법으로 사용하여 측정하고 평가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²⁶ 또한 ‘일유형(work type)’변수가 북한체제 및 계층의 변화추이를 살피는 기초변수로서 유용함을 보여준다.

이 논문의 핵심적 발견은 당원, 정치신분, 토대와 같은 국가의 정치체제 요인이 북한주민 개개인들이 종사하는 일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시장에 참여하여 비공식일을 하는 종사자들의 위치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점이다.

이 연구결과는 두 가지의 상반된 의미를 던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체제에 대한 불만이 안으로 내연(內燃)하고 있고 회색지대에 속한 이중일 유형 종사자들의 불만의 수위가 비공식일 유형에 근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국가가 지닌 힘이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을 압도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공식일 유형에 속한 사람들의 체제불만은 가장 낮은 반면, 비공식일 종사자들은 직접 시장에 참가해서 일하지만 이들의 체제불만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중일 유형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공식직업이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시장에 참가해서 이중으로 일하는 노고를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이중 직업생활을 하면서

²⁵ 김병연·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과 정부』.

²⁶ 표집의 한계상 이 연구결과를 북한주민 전체에 일반화할 수 없다. 그러나 표집의 편향성 문제는 연구자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북한의 정치체제에 표면적으로 순응하고 있지만 불만의 수위는 비공식일 유형이 지닌 체제불만수위에 근사한 수준이다. 이는 북한주민들의 미세한 의식변화와 북한체제의 균열을 드러내는 지표로서 발견의 의미가 크나 이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는 국가가 가진 권력의 힘 앞에서 시장에 참가하여 일하는 개인의 힘이 왜소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비공식화가설’이 의미하는 ‘시장과 정부 간의 밀고 당기는 관계’로 발전하기에는 요원할 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발전하기도 어렵다. 불평등하게 정렬된 북한주민의 일유형별 분화상태는 공식 직업 없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여 일하기보다는 배급을 받거나 직위를 활용하여 뇌물을 받는 직업을 갖는 것이 더 유리한 북한 직업체제의 구조적 불평등과 북한체제 균열상태의 현 지점을 보여준다. 상층, 중층과 같은 정치신분, 당원 같은 정치체제 요인이 공식일 유형과 이중일 유형에게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적대계층이나 비당원과 같은 정치체제 요인은 비공식일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풀이하자면 정치신분이 상층 혹은 중층인 경우에 배급을 받는 일 혹은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일에 종사할 승산이 높았고, 적대계층 출신이나 비당원이 비공식일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북한주민들의 일세계에서 시장의 힘은 무력하기만 한가? 역으로 시장 확대가 정권유지에 기여할 것인가? 북한주민의 일세계 속에서 시장의 힘은 어떻게 나타나고 작용하는지, 시장의 성과물이 어떻게 분배되며 어디로 향하는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후속연구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접수: 4월 30일 ■ 심사: 5월 30일 ■ 채택: 6월 10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병연·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과 정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2.
-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서울: 역사비평사, 2001.
- 김수암·김국신·김영운·임순화·박영자·정은미 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남궁영.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평가』.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박형중·조한범·장용석.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선한승. 『북한주민의 직장생활과 노동』. 서울: 공보처, 1994.
-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카니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양문수·박정호·구갑우·정진화·이동명·조정아. 『북한의 노동』.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7.
- 오길남. 『북한의 노동력구조』.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6.
- 이석·김창욱·양문수·이석기·김은영.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16-03.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이승훈·홍두승.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임강택·이석기·이영훈·임을출. 『2009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0년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전병유. 『북한의 시장·기업 개혁과 노동인센티브제도』.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4.
- 홍두승·김병조·조동기. 『한국의 직업구조』.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2. 논문

- 김화순.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변동.” 박성재 외.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변동과 취업지원제도 평가』.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11.
- _____. “북한주민의 일자리유형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1호. 2012.
- 박순성·고유환·홍민.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현대북한연구』. 제11권 3호. 2008.
- 박정진. “북한의 생산정치와 노동자 조직의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 박영자. “북한의 근대화과정과 여성의 역할(1045-80년대): 공장가정의 정치사회와 여성노동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_____. “2000년대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일상 구술: ‘정상 노동생활의 주변화’를 중심으로.” 『진보평론』. 제38호. 2008.
- _____.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노동일상의 상황과 구조.”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3호. 2009.
- _____. “북한 경제시스템의 복잡계 현상: 시장의 자기조직화 경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19권 3호. 2010.

- _____. “체제변동기 북한의 계층, 세대, 지역균열.”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5호. 2012.
- 박형중.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2012.
- _____.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5호. 2012.
- 서재진. “북한의 성분차별 정책이 시장요소 확산에 미친 영향.” 『통일문제연구』. 제17권 2호. 통일연구원, 2005.
- 윤철기. “북한체제의 주변부로의 귀환: 김정일시대 정치적 렌트 수취국가로의 이행과 과도기 사회적 특징.”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1호. 2013.
- 이석기. “북한의 노동: 2000년대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2. 11.
- _____.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행태의 변화 생존주구형 내부자통제와 퇴행적 시장화.” 서울대 경제학 박사학위논문. 2003.
- 이은진. “북한의 노동통제와 공장체제.” 『한반도 통일논의의 쟁점과 과제』. 한신대학교출판부, 2001.
- 정건화. “북한의 노동체제에 대한 제도론적 접근.” 『동향과 전망』. 제62호. 2004.
- 조동호. “북한의 노동력 수준의 평가와 실제 사례에 관한 연구.” 선한승 외. 『남북협력과 노동정책』.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0.
- 조정아. “산업화시기 북한공장의 노동규율 형성문제.” 2003년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2003.
- _____. “북한의 작업장 문화와 노동자 정체성: 노동통제와 작업동의를 중심으로.” 양문수 외. 『북한의 노동』.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 조명철. “북한 작업장 관리체계 분석.” 선한승 외. 『남북협력과 노동정책』.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0.
- 차문석.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정책: 소련, 중국, 북한의 생산성의 정치.”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1999.
- _____. “북한의 시장과 시장경제.” 『담론201』. 10권 2호. 2007.
- _____. “북한 노동 일상의 세계와 접근방법.” 『현대북한연구』. 제11권 3호. 2008.
- _____. “북한의 붉은 공장과 노동일상세계: ‘아우라’없는 노동일상에 관한 접근.” 고유환 외. 『북한의 일상생활 연구: 외침과 속삭임』.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 한상근. “직업연구의 현황과 과제.” 『진로교육연구』. 제18권 1호. 한국진로교육학회, 2005.
- 홍 민. “북한의 현지도도의 정치경제적 기원에 관한 연구.” 동국대 북한학 석사학위논문. 2001.
- _____.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최봉대. “탈북자 면접조사방법.”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 _____.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개별가구의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의 계층화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1권 2호. 2008.
- _____. “북한의 지역경제협력 접근방식의 특징: 신가산제적 사인독재정권의 ‘혁명자금 관리 제도’와 대외경제협력의 제약.” 『현대북한연구』. 제14권 1호. 2011.
- _____. “북한의 시장활성화와 관련된 체제전환의 계급적 행위 주체 형성의 문제.” 이화여대 ssk세미나 발제문. 2012.

Factors Determining the Work Type for North Korean Residents in the Period of Marketization

Wha-Soo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works of North Koreans are reorganized against marketplace and what such reorganization means to changes in North Korean system.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200 North Korean refugees who had left North Korea after 2010 were selected as subjects. They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based on work type such as formal workers, informal workers, dual workers, unemployment and non-economic workers, and factors influencing work type characteristics and work type differentiation were identified.

Comparing using multinomial logit model using demographic factors, human resource factors, regional factors and political system 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political system factors (political status, party membership and today) made the biggest effects on work type differentiation. For example, those who are in upper or middle class in political status have higher probability to have formal works. On the other hand, if they were from antagonized class or don't have party membership, they are likely to have informal works. When they have party membership and are not from antagonized class, they have better chance to have both formal and informal works. There was conspicuous difference in consciousness on dissatisfaction with system (informal > dual > formal), and interestingly dissatisfaction with system of those who have both formal and informal works has approached near to that of informal worke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is study has identified that the power of nation represented by 'political system factors' made important effects on interpopulation differentiation represented by 'work type' through an empirical case study.

Key Words: work type, marketing, political system factors, North Koreans, multinomial logit model, formal work, informal work, both formal and informal works, 8.3 laborer